

원자재부터 생산까지... 美 '완결형 현지화' 전략 가동

posco

⑤ 포스코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가 취임 1년을 넘기며 사업 구조 재편과 지배 구조 변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불필요한 사내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일본제철 지분을 매각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핵심 사업 중심의 전략을 고수해 왔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철강 분야 통상 리스크는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포스코의 글로벌 전략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장 대표의 리더십과 대응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 내 철강 생산라인 전면 구축 쇳물 주조·철강재 생산 등 현지화 관세 장벽 넘기 위한 전략적 투자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물론 철강, 이차전지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US스틸 등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해외 철강업체를 자국으로 유치해 안보 핵심 물자인 쇳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은 안보관계에 있는 일부 국가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면제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쿼터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예외 규정도 전면 철폐됐다.

◆현지 투자로 관세 장벽 정면 돌파 포스코는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소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제57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부 전경.

/포스코

재부터 제품에 이르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관세 장벽에 맞설 방침이다. 쇳물 주조부터 철강재 생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산 거점을 해외에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주대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제57회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미국과 인도 같은 고성장·고수익시장에서 완결된 현지화 전략을 실행해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인도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인도는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철강 수요 역시 7%씩 늘어 2030년 1억 9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는 지난 2024년 10월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철강, 이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인도 동부에 연간 생산능력 500만톤 규모의 포스코 일관제철소를 짓고 이를 추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의 'LNG'에서 기회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인프라 시장 공략에도 매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이를 관세와 연계해 통상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는 화석 경제를 부흥해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향후 LNG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도 시장 연평균 6.7% 성장 전망 철강 수요 7% 증가 예상 대응 강화 JSW그룹과 협력해 생산 확대 목표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핵심 인사인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내주 방한해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프로젝트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 에너지 기업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며 그 대상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개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 기조를 완화하는 외교·경제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LNG 저장탱크용 '극저온 고방강간'을 개발했으며 해당 소재를 적용해 포스코 이앤씨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LNG 터미널'을 완공하기도 했다.

장 회장도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역할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장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 밸류체인 간 연계 강화와 수익성 제고의 기회를 찾는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미국이 향후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넓힐 여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은 건설, 자동차 부문의 철강 수요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자국 내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철강재를 국내에서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 행보로 보았을 때 향후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국가 사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6만전자·21만닉스' 돌아왔다... 외국인, 반도체 '사자' 행진

K-반도체 반등 기대감에 코스피 상승 외국인, 8개월 만에 삼성전자 순매수 모건스탠리 "반도체 침체 벗어나"

국내 반도체가 외국인 투자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핀테크와 방산주를 비우고 그 자리에 반도체를 담는 모양새다. 외국인 '사자'에 삼성전자는 최근 5개월 만에 '6만전자' (주가 6만원대)에 복귀했고, SK하이닉스는 '21만닉스' (주가 21만원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6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서만 11.01% 상승했다. SK하이닉스도 이날 21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3월들어 11.20% 상승했다.

외국인의 '사자'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조 3263억원, SK하이닉스 주식을 3483억

원 가량 순매수했다.

국내 반도체주 상승의 주요 배경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D램 시장이 빠르게 '계곡'(침체상황) 너머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1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했다.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는 종목으로 꼽고, 이달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의 성장동력 확보 구상 등을 밝힌 것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키웠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목도가 낮았지만 올해는 일반메모리 위주로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강도

높은 위기극복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도 4년 만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갤럭시S25 시리즈의 판매 호조와 폴더블폰의 인기 덕분이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6129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전분기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갤럭시S25 시리즈 출시가 판매량 증가에 기여한 가운데 특이 고가 모델인 울트라 모델의 판매 비중이 46%로 높았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연간 판매량은 3800만대로 전작인 갤럭시 S24 판매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며 추가로 2분기에 슬림 모델인 S25 엣지가 출시돼 연간 판매량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쏟아진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

원은 "일반 메모리칩이 스마트폰, PC, 서버에서 차례로 재구조정이 완료돼 수요가 나아지고 있으며 특히 NAND(플래시메모리칩의 일종)는 공급자 감소와 모바일·PC의 수요 증가 덕에 공급자가 격 인상이 시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HBM은 TSMC가 올해 A1칩 생산계획을 10% 하향 수정했지만 내년 계획은 유지했고, 올해 HBM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수요가 둔화해도 업계는 SK하이닉스의 물량 확보를 먼저 할 것으로 보이며 HBM 시장 내 SK하이닉스 점유율은 올해 56%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31일 재개되는 공모도 역시 반도체 기업 주가에 긍정적이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모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현재 국내 외국인 수급이 저점 국면이어서 확대 여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신하은기자 goche@